

9월 금리 인상론 재부각, 빅테크 선방에도 지수 전반 약세 압력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매파 연준 우려에 증시 하락, 반도체 약세 vs 빅테크 강세 엇갈림

- 미 증시는 DOW -0.02%, S&P500 -0.25%, NASDAQ -0.52% 하락. 통신서비스, 임의소비재 강세, 기술주, 유틸리티, 산업재 약세
- 케빈 워시 잭슨홀 발언에 성장주 중심 약세. 특히 반도체섹터(SOX -3.5%) 기업 실적 여파 및 중국 CXMT 경계감에 약세 뚜렷. 한편, CXMT는 주말간 미 국방부를 상대로 중국 군사기업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미 공급망 진출 염두한 조치로 해석
- 애플, 4대 하이퍼스케일러 등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비교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보유한 점에서 매수세 유입, 지수 하단 지지

워시 의장 잭슨홀 연설 이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

- 워시 의장은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 연설에서 강한 인플레이 경계감 드러내며 매파적 기조. 물가 지표들이 목표치를 향해 적절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발언하며 추가 긴축 가능성 확대. 2Y(4.348%, +11.8bp) 중심으로 국채금리 상승, CME FedWatch 9월 인상 전망 35.4%→57.5% 급등
- 워시 의장 발언은 연준의 독립성 우려를 어느정도 해소. 다만 공격적 금리 인하를 요구해 온 백악관 입장과 대치되며 중간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통화정책에만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미-베네수엘라 민간기업 투자 기반 석유거래 협정 체결

- 미 전략비축유 재고가 3억 bbl을 하회한 상황에서, 미 국방부 전략자본국이 베네수엘라 민간기업 NABEP 지분 35% 및 생산량의 20%를 원가 구매할 권리 확보. NABEP는 650억 bbl 규모(베네수엘라 전체매장량의 22%)가 매장된 유전 개발권을 보유. 국방부 역할이 석유개발투자까지 이어진 점 이례적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유가 안정 목표를 강조하고 있으나 인프라 건설 소요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 유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 오히려 연초부터 이어진 베네수엘라 관련 미국의 행보는 중국 영향력을 밀어내는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	내용
AMZN	아마존	+4.0%	에버코어 ISI가 목표주가를 \$315→\$355로 상향 조정한 후 주가 강세. 에버코어 ISI는 설문조사 결과 에이전틱 AI가 아마존 리테일 사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강조. 한편 AWS와 엔비디아(-4.6%) 간 초대형 파트너십 확대. GPU 200만개 추가 발주 소식
AAPL	애플	+1.6%	9월 1일 존 터너스 신임 CEO 공식 취임과 9월 9일 신제품 발표 이벤트(아이폰 18 프로 등)에 시장은 주목. 또한 미국에서의 애플TV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인상 발표. 월간 요금 \$12.99→\$14.99, 연간 요금 \$99→\$119로 인상. 사측은 애플TV를 포함하는 번들인 Apple One Individual의 가격도 인상한다 밝힘
MRVL	마벨 테크놀로지	-10.3%	전 거래일 실적발표. 내년 가이드نس 상향에도 불구하고, 알파벳(+1.5%)과 체결한 AI칩 계약 관련 구체적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며 매출 발생시점에 대한 의구심에 추가 약세. 한편 모건스탠리는 목표주가를 \$224→\$246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IB들 대체로 우호적 전망 제시
PYPL	페이팔	-12.7%	핀테크 기업 스트라이프와 사모펀드 어드벤처 컨소시엄의 약 \$50B 규모 인수 추진 철회 보도에 추가 급락. 페이팔 이사회는 과거 고점 대비 밸류에이션 저평가, 규제 승인 및 자금 조달 난항 등을 이유로 제안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GAP	갭	+12.9%	실적발표. 연간 가이드نس 상향 조정, 부진했던 올드네이비 부문의 신임 CEO 선임 소식에 추가 강세. 매출은 컨센 소폭 하회했으나, EPS는 컨센 상회. 실적 부진의 주요인이었던 올드네이비 부문에 마이클 프란시스 신임 CEO를 선임하며 턴어라운드 기대감 유입. 마이클 프란시스는 월마트 자문역 출신이자 JC페니와 타깃을 거친 베테랑으로 평가되는 인물